

# Hayek의 認識論的 個人主義에 관한 研究

朴 祥 洙 \*

## 目 次

- |                        |                   |
|------------------------|-------------------|
| I. 序 論                 | 2. 主觀主義           |
| II. 感覺과 規律—心理哲學的 基礎    | 3. 無知와 批判的 合理主義   |
| 1. 感覺認知와 推象的 規律        | IV. 科學的 說明과 豫測可能性 |
| 2. 規律認知                | 1. 假說—演繹的 體系      |
| 3. 規律行動                | 2. 豫測과 說明의 限界     |
| 4. 小結—規律의 役割           | 3. 豫測可能性과 科學主義    |
| III. 認識論的 個人主義         | V. 結 論            |
| 1. 하이에크의 認識論的 個人主義의 內容 |                   |

## I. 序 論

하이에크는 사상적으로 스스로 자유주의자임을 천명한다.<sup>1)</sup> 자유주의자는 개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 저항하며 또한 정부, 노동조합등의 임의적 힘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상은 비록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自發的 過程을 통한 變化, 進歩등을 원한다. 즉 어떤 한 장소에 고요히 멈추어 있기를 원하거나 또는 전통을 고수하려고만 하지 않고, 어디론가(잘 모르지만) 가기를 원한다. 물론 人爲的 또는 任意的 強制力에 의한 변화는 거부한다.

하이에크는 이런 자유주의 사상의 신봉자이지만, 그러나 극단적인 자유주의(예컨대 현대오스트리아학파의 Rothbard등)만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개인적 자유의 신장에 역점을 둔다는 기본원리에 입각하면서도, 이런 자유주의하에서 선천적, 후천적 능력에 의한 불공평으로 고통(자유억압)

1) Hayek, F. A.: *The Constitution of Liber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0). p.397~411.

\* 社會科學大學 助教授

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배제하지 않는다.

하이에크는 학문적으로도 기본적으로 독선적이거나 극단적인 견해를 되도록 회피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이런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깊이 사색하는 하이에크의 성향은 결과적으로 그의 학문적 업적을 어찌면 다른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높이 인정하지 않게된 결과를 초래하였을런지 모른다. 가장 중요한 요소를 극단적으로 중요시함으로서 그 부분을 크게 부각시키면 일반대중이나 경제학자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할런지 모르나, 그는 이런 극단적 견해의 제시를 매우 기피한다. 또한 그는 사회과학의 각분야가 독립적인 영역을 고수하려는 경향에 대해 비판적이며, 심리학, 철학, 법학등의 협조하에서 특정분야를 연구할 것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認識論的 個人主義에 입각한 하이에크의 社會科學方法論을 철저히 분석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社會科學의 各分野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데 있다. II 장에서는 인식론적 개인주의의 심리학적 기초를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感覺的 認知에 기인한 規律認知와 規律行動을 설명한다. III 장에서는 인식론적 개인주의의 주요골격인 主觀主義를 다루며, 感覺認知的 限界인 無知를 고찰한다. IV 장에서는 인식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해서 理論的 說明 및 豫測의 限界, 그리고 豫測可能性의 問題를 설명한다. V 장에서는 하이에크의 사회과학방법론을 요약한다.

## II. 感覺과 規律—心理哲學的 基礎

### 1. 感覺認知와 推象的 規律

認識論(epistemology)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認知하는 것 및 알고 있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人間이 생각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다룬다.<sup>2)</sup> 즉 인식론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英國의 經驗主義는 人間이 知識을 획득하는 수단이 理性(reason) 또는 知性(intellect)이 아니라 感覺認知(senseperception)라는 견해이다.<sup>3)</sup>

하이에크는 D. Hume의 經驗主義를 철저히 승계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知識의 획득수단으로서의 感覺認知를 중요시 여기며, 그리고 각 개인은 이런 감각인지를 통해서 추상적 규율을 습득하고, 이런 규율의 습득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외부세계를 理性이 아니라 感覺을 통해서 인지하고, 이런 감각은 외부세계의 具體的인 모습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조직의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그 느낌이 전달됨에 따라 추상화되어 버린다고 주장한다.<sup>4)</sup>

2) Mises, L. von: *The Ultimate Foundation of Economic Science* (Kansas City: Sheed Andrews and McMeel, 1962). p.2.

3) Hamlyn, D. W.: "History of Epistemology," in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Edwards, P., London: Macmillan, 1967) vol.3. pp.22~28.

4) Hayek, F. A.: *The Sensory Order: An Inquiry into the Foundations of Theoretical Psycholog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2). pp.55~78, pp.142~144.

하이에크는 自覺(consciousness)과 無自覺(unconsciousness)를 구분하면서, 自覺을 통한 事物의 認知도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事物에 대한 認知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sup>5)</sup> 특히 인간의 感覺的 秩序(sensory order)<sup>6)</sup> 중에서 自覺할 수 있는 감각적 질서는 그 전체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극히 작으며, 상당부분이 無自覺 또는 無意識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自覺할 수 있는 感覺的 秩序에 의존하는 理性 또는 知性이 社會科學 특히 人間行動에 관한 研究에서 점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고 할 수 있다. (물론 感覺的 秩序를 自覺的인 感覺的 秩序와 無自覺的인 感覺的 秩序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 중간에도 여러가지의 spectrum이 존재할 것이다.)

한편 事物을 感覺에 의해서 認知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行動 등 전반적인 人間行動에는 規則性(規律)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런 規律은 推象的인 意味를 가진다. 즉 感覺에 의해서 事物을 인지할 때에는 人間이 그런 事物의 具體的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推象化를 먼저한다(推象의 優位). 그리고 어떤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킬 때에도 이런 推象的 規律에 입각해서 행동한다. 따라서 그는 推象的 規律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 2. 規律認知

“規律은 ……行爲 또는 行動에 대한 指示된 指針이다”<sup>7)</sup> 그러나 이런 規律은 구체적인 형태로 명시되어지거나 또는 언어로서 언급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은 그 규율 자체를 잘 모른다. 물론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자체를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 그리고 原因과 結果간의 關係(예컨대 原因과 結果간의 관계에 관한 自然法則)처럼, 즉 어떤 충격이 주어질 때 하나의 규율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의 事件에 대해서 단 하나 또는 두개 또는 극소수의 규율만이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 規律은 하나의 體系(system)로 구성되어 있다. 즉 몇개의 규율들이 그 上位의 하나의 규율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상위의 몇개의 규율들은 더 높은 상위의 규율과 연관되어지는 방식으로 하나의 하이어나키(hierarchy)를 구성한다.<sup>8)</sup> 이것을 간단히 推象的 規律의 體系(system of abstract rules)로 언급되어질 수 있다.

이런 복잡한 規律의 體系內에서 人間은 感覺(sense)를 통해서 事物을 또는 다른 人間の 行動을 認知하는데, 이런 현상을 規律認知(rule-perception)라고 한다. 人間은, 자기 자신의 推象的 規律(물론 자기 자신도 자신의 規律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전혀 모를 수도 있다)에 입각해서, 事物 또는 다

5) Ibid., pp.132-146.

6) 感覺的 秩序(sensory order) 또는 心理的 秩序(phenomenal or mental order)는 外部世界的 物理的 秩序(physical order of events)가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再生(reproduced) 되어지는 秩序를 말하며, 이런 질서가 심리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Ibid., p.29.

7) Garver, N.: "Rules", in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Edwards, P., London: Macmillan, 1967) vol.7, p.231.

8) Hayek, F. A.: "Rules, Perception and Intelligibility,"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1962. Reprinted in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ed. Hayek, F. 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7), pp.61-62.

른 개인의 행동을 認知한다.

이런 推象의 規律의 形成은 感覺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면에서 經驗主義를 추종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感覺에 의해서 事物과 다른 개인의 行動들을 인지하지만, 그런 認知가 具體的인 것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推象化過程을 거치면서 인지된다는 면에서 존 로크적 經驗主義와 대비되어진다.<sup>9)</sup> 특히 感覺認知가 自覺的인 感覺認知에만 한정하는 순수한 경험주의에 비해서, 여기에서의 感覺認知는 自覺的, 無自覺的 認知도 포함된다.<sup>10)</sup>

한편 事物 또는 다른 개인의 행동이 전혀 경험하여보지 못한 즉 최초의 경험이 되는 事件에 대해서, 기존의 추상적 규율로서는 認知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그 개인은 자신의 규율들을(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수정하게 된다. 물론 수정되는 규율들은 최초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규율의 집단의 부분적인 수정이 될 것이지만, 규율들간에도 연계된 관계때문에 전체 규율체계의 수정으로 나타난다. 물론 전체규율체계가 전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수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추상적 규율의 체계는 불변적인 것이 결코 아니고,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부응해서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다시 말하면 추상적 규율의 체계는 과거의 경험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험의 축적에 따라 개인의 추상적 규율도 서서히 변모한다.<sup>11)</sup>

### 3. 規律行動

人間은 規律의 具體的인 內容을 잘 모르면서도 이런 規律에 입각해서 행동하는데, 이런 현상을 規律行動(rule-action)이라고 한다. 하이에크의 견해로는 이런 현상에 熟練(skill)이란 개념이 포함된다고 본다. 소위 ‘노우-하우’(knowledge-how)를 말하는데, ‘그것을 안다’(‘know that’)라는 개념과는 구분된다. 즉 어떤 機能的인 일을 하는 방식을 기술자 또는 기능공들이 알지만, 구체적으로 명백히 언급할 수 없는 현상이다. 단지 人間들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sup>12)</sup>

자신의 규율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規律行動의 가장 단순한 예는 模倣(imitation)이다.<sup>13)</sup>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을 그대로 자기 자신이 행하는 것이 모방이라면, 이것은 구체적인 다른 사람의 행동을 구체적인 자신의 행동으로 그대로 시현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모방은

9) 推象의 優位에 대해서 다음을 참조하라 : Hayek, F. A.; "The Primacy of the Abstract," *Beyond Reductionism* (ed. A. Koestler and J. R. Smythies, 1969). Reprinted in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ed. Hayek, F. 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pp.35~49.

10) Hayek, F. A. (1952) op. cit. p.167.

11) 경험의 축적에 따른 추상적 규율의 변화는 個體發生的(ontogenetic)일 수도 있고, 系統發生的(phylogenetic)일 수도 있다. 전자인 경우에는 순수히 개체의 경험의 축적이며, 후자인 경우에는 유전적인 경험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구분불가능할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구분을 회피한다. Hayek, F. A. (1952) op. cit. p.167.

12) Hayek, F. A. (1962) op. cit. pp.43~44.

13) Ibid., pp.46~48.

구체적인 현상을 자신의 中樞神經에 確認(identification)이란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재현될 때 다른 사람의 규율(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신의 규율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을 잘 모르면서, 또한 자신의 確認過程을 잘 모르고 그리고 자신의 推象的 規律(이것은 모방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규율을 의미한다)도 잘 모르면서도 그대로 재현한다. 이런 경우는 規律行動의 아주 단순한 예일 것이다.<sup>14)</sup> 모방의 예가 명확히 보여주는 바와같이 인간은 자신의 규율을 잘 모르면서도 그런 규율에 입각해서 행동한다.

그러면 자극과 반응간의 관계를 알아보자. 외부적 자극이 있을 때 인간은 자신의 규율에 입각해서 인지하고 그 규율에 입각해서 행동한다. 그러나 어떤 최초의 외부적 자극이 그 개인의 추상적 규율을 수정시킨다면, 과거와 동일한 외부적 자극에 대해서도 상이한 반응을 보인다. 즉 동일한 자극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은 수정된 규율에 입각해서 인지하고 또한 수정된 규율에 입각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처음과는 상이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자극과 반응간에는 반드시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이런 현상이 오히려 일반적인 일 수도 있다. -

#### 4. 小結—規律의 役割

人間相互間的의 作用에 관한 科學的 說明(또는 豫測)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行動들의 意味에 관한 認知(the perception of the meaning of other people's action)가 수행하는 역할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문제는 社會科學方法論에서 Verstehen(understanding)에 관한 논의에서 이미 알려졌는데, 行動들의 意味에 관한 이런 理解는 意思疏通(이해되도록 의도된 행동: communication)에 관한 理解와 유사한 종류이다. 人間行動의 意味를 把握(理解한다기 보다는)한다는 것은 觀察者가 행동하는 주체와 어떤 그리고 얼마만큼의 共通點을 갖느냐에 의존하며, 그리고 把握할 수 있는 能力은 관찰자가 피관찰자의 行動規律과 유사한 규율로 무장되어 있느냐에 의존한다. 즉 관찰자가 피관찰자와 얼마나 친숙해졌느냐(knowledge by acquaintance)에 의존한다.<sup>15)</sup>

그러나 친숙해짐에 의한 知識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規律을 알고 있느냐에 의존한다. 하이에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sup>16)</sup>: “다른 사람들의 행동의 의미에 관 우리의 理解가 옳은지 여부를 특정한 상황에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體係의 節次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이며, 또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실들에 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도 진실이다.”

理論的 社會科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不完全하지만 그러나 一般的인 原理는 알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은 일반적인 원리에 관한 설명을

14) 어떤 단순한 모방이든 기술과 같은 세밀한 모방이든간에 “관찰하고 모방하는 個體는 종종 그 행동이 구성되어지는 요소들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가 관찰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로서 언급하지 못하면서도, 관찰된 움직임이 대응되는 행동으로 직접 번역되어진다”(Ibid., p. 47)

15) Ibid., pp. 58-59.

16) Ibid., p. 60.

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원리는 또한 規律에 관한 지식에 기초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規律에 관한 知識은 被觀察者에게는 與件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行動規律(rules of action)에 관한 知識인 이런 與件(data)은 특정한 人間의 行動方向을 결정짓는다. 다시 말하면 與件은 사회과학연구에서 특히 認識論的 個人主義에 입각한 사회과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與件은 行動하는 人間이 外部世界의 事物과 다른 人間의 行動에 대해 갖는 知識이며, 이런 與件의 變化는 행동하는 인간에게는 새로운 知識의 追加 또는 變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Ⅲ. 認識論的 個人主義

#### 1. 하이에크의 認識論的 個人主義의 內容

認識論的 個人主義(epistemological individualism)는 知識의 本質에 관한 哲學的 學說이며, 이런 학설은 知識의 根源이 個人에게 있음을 주장한다.<sup>17)</sup> 이런 학설은 크게 데카르트적 合理主義에 근원한 주장과 英國의 經驗主義에 근원한 주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이에크는 후자의 견해를 추종한다.<sup>18)</sup> 하이에크의 認識論的 個人主義의 특성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9)</sup>

첫째, 하이에크는 知識이 획득되어지는 手段으로서 感覺認知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知識이 感覺(理性은 물론이고)면에서도 絶對的으로 確實한 根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個人의 知識에는 어떤 限界가 존재하며, 지식에 대한 懷疑論을 갖는다. 그리고 人間行動의 方向은 個人이 所有한 不完全한 知識(이것은 個人에게는 主觀的인 與件으로 작용한다)에 의존하는데, 社會科學에서는 이런 知識의 限界 또는 無知(ignorance)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sup>20)</sup>

둘째, 知識의 形成은 感覺認知에 의한 經驗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면에선 D. Hume의 경험주의와 유사하지만, 그런 經驗이 반드시 自覺되는(意識的인) 經驗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潛在意識的인 經驗을 포함한다. 특히 感覺이 具體的인(또는 感銘의 類似性的의) 形態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17) Lukes. S.: *Individualism* (London: Basil Blackwell. 1973). p.107.

18) Hayek. F. A.: "Individualism: True and False." delivered Lecture. 1945. Reprinted i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ed. Hayek. F. 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pp.1~32.

19) K. R. Popper도 유사한 견해를 갖는다. Quinton. A.: "Popper. Karl Raimund." in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Edwards. P., London: Macmillan. 1967) vol.6, pp.399~400을 참조하라.

20) Hayek. F. A.: "The Theory of Complex Phenomena." in *The Critical Approach to Science and Philosophy* (ed. Lunge. M., New York: The Free press. 1964). Reprinted in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ed. Hayek. F. 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7). pp.39~40.

神經系統의 높은 단계에서 추상화되는 형태로 경험한다는 점, 즉 ‘超意識的으로’(super-conscious) 경험한다는 점이다.

또한 특별한 경험으로부터 一般化(generalization)를 유도하는 歸納主義에 반대하면서, 一般化하는 能力이 먼저 나오고 이런 능력에 의해서 경험을 통한 지식을 축적하고, 이런 지식의 축적은 일반화의 능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初有의 一般化의 能力이 生得說(nativism)적 측면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그런 능력은 논리적으로는 설명불가능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설명가능한 타고난 性向 또는 意向(disposition)이라고 보았다.<sup>21)</sup>

이런 결과 오스트리아學派의 經濟學 및 社會科學方法論에서 특징적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主觀主義(subjectivism)이며, 또한 主觀主義의 本質(즉 人間의 無知)에 대한 認識은 그들로 하여금 知識에 대한 謙虛를 강조하게끔 한다.

## 2. 主觀主義

社會의 複合的 現象을 연구하는 “社會科學에서 論議의 餘地없이 알려진 것은 複合的 現象의 要素들(elements)이다.”<sup>22)</sup> 즉 복합적 현상을 구성하는 行動主體들의 行動이 논의의 여지없이 알려져 있을 뿐이며, 반면에 복합적 현상인 사회 그 자체는 우리가 명백하게 분석불가능한 全體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은 행동주체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해서 合成的 方法으로 그 행동주체들에 의해 구성되어진 사회를 연구해야 한다. 소위 이런 견해를 方法論的 個人主義(methodological individualism)라고 할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방법론의 특성은 主觀主義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23)</sup>

### 가) 客觀과 主觀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과는 달리, 客觀的으로 測定可能한 事實들의 存在를 부정한다. 物件과 物件간의 關係를 분석하는 자연과학에서는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사실들이 존재하며 이런 사실들의 탐구가 중요하지만, 物件과 人間 또는 人間과 人間간의 關係를 분석대상으로<sup>24)</sup> 하는

21) Hayek, F. A. (1969) op. cit. pp. 42~46.

22) Hayek, F. A.; "Socialist Calculation I: The Nature and History of the Problem." in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ed. Hayek, F. A., London: George Routledge & Sons, 1935). Reprinted i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ed. Hayek, F. 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p. 126.

23) Hayek, F. A.; *The Counter-Revolution of Science* (Indianapolis: Liberty Press, 1952) p. 64: "사회과학의 주관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된 (오스트리아)방법론적 개인주의의 특징적 성격은……개개인의 행동에서 개개인을 인도하는(guide) 개념들(즉 규율등)로부터 체계적으로 출발하지만, 그러나 개개인의 행동에 관한 理論化의 결과로부터 출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개개인의 행위를 인도하는 개념에 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런 개인의 행동에 관한 분석이 주어진 사실 또는 불변적인 여건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모든 개인의 행동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전제로부터의 출발을 강력히 비판한다.

24) Ibid., p. 41.

사회과학에서는 人間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 또는 사회과학의 분석대상이 된다. 자연과학에서는 객관적 사실들과 主觀的 見解간의 對比가 매우 단순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對比가 간단히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에서의 對象物 또는 事實들이 역시 見解이기 때문이다. 즉 이런 見解(opinion)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아니라, 그 行動이 사회과학의 研究對象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見解이기 때문이다.

#### 나) 主觀과 與件

사회과학에서의 事實들(facts)은 단순히 견해이며, 이런 견해는 우리가 분석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유되어지는 見解 또는 意見이다. 이런 見解는 특정한 人間에 의해 보유되어지는 信念(belief)이며, 與件(data)을 구성한다.<sup>25)</sup> 與件은 主觀的인 人間の 信念(human belief)이며, 外部世界에 대한 행동하는 人間の 知識이 된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 一貫的이고 凝集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多數의 個人들에게 非一貫的이고, 不完全하며 分散된 형태로 존재한다.<sup>26)</sup>

與件은 두가지의 特性을 갖는다. 첫째, 社會制度, 物理的 環境 또는 다른 개인의 行動등이 특정한 人間에게 意味를 부여하게 되려면, 즉 특정한 개인에게 與件이 되려면, 그런 事項들이 특정한 個人의 心理에 反映되어야 한다.<sup>27)</sup> 주어진 外部世界가 그 個人의 心理에 認知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事項들은 그 個人의 行動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둘째, 비록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時間이 경과함에 따라 그 個人이 새로운 知識을 획득한다면, 그의 行動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동일한 상황에서도 그 個人의 外部世界에 대한 主觀的 信念이 변화한다면, 與件的 變化를 意味하게 된다.<sup>28)</sup>

### 3. 無知와 批判的 合理主義

하이에크는 人間の 知識의 不完全性, 즉 無知를 중시한다. 그는 사회과학에서 가장 위험한 사

25) Ibid., p.47. 그리고 Hayek, F. A.: "Economics and Knowledge," *Economica*. 1937. Reprinted i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ed. Hayek, F. 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p.36에서 "소위 '與件'은……(嗜好와는 별도로) 문제되는 개인에게 주어진 모든 사실이며, 그에겐 존재한다고 알려진(또는 믿어지는) 事物들이고, 그리고 엄격한 의미에선 客觀的인 事實들은 아니다."

26) Hayek, F. A. (1952) op. cit. p.50에서 하이에크는 사회과학연구의 출발점에서의 두가지의 기본적인 사실은 各個人의 知識의 不完全성과 모든 知識의 (各個人間的) 分散이라고 말한다. 전자는 현재 논의되는 사항이고, 두번째 사항은 分散된 知識의 보다 效率的 活用に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27) Ibid., p.58.

28) 상이한 사람들간의 意圖 또는 期待의 兩立性, 그들간의 知識의 分化, 適切한 知識이 획득되어지고 期待가 形成되어지는 過程은 Hayek의 1937年 論文 "Economics and Knowledge"를 참조.



고방식이 개인의 知識이<sup>29)</sup> 完全하다고 가정하는 견해라고 보았다. 이런 견해의 대표적인 형태가 合理主義的 個人主義(rationalistic individualism)인데, 이것은 프랑스와 서구대륙의 데카르트적 합리주의이다. 이런 합리주의는 個人主義의 反對思想인 社會主義 또는 集産主義로 전개되어지는 경향을 갖는다.

#### 가) 理性의 限界와 無知

Black은 理性(reas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sup>30)</sup> “理性은 眞實과 虛偽, 善과 惡을 구별하는 心理의 能力이며, 그리고 이런 能力은 그 소유자로 하여금 事實들로부터 또는 前提로부터 推論을 가능케 한다.” 데카르트적 理性은 幾何學의 精神(esprit géométrique)—극소수의 명백하고도 의심의 여지없는 前提들로부터 演繹的 過程에 의해서 眞理에 到達하는 心理의 能力—으로 인식되어진다.<sup>31)</sup>(이성에 관한 앞의 정의에서 뒷부분을 강조한다).

여기에서의 幾何學的 精神은 無意識의 世界는 완전히 배제되어지고 自覺的인 世界만을 다루게 된다. 왜냐하면 無意識의 世界는 意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理性에 의해서는 分析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人間의 行動樣式에서 人間이 거의 알지 못하는 規律에 의해서 人間이 引導되어지기도 하므로, 人間의 意識的 理性(conscious reason)은 人間의 行動을 결정하는 상황들중의 단지 몇몇만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合理的 思考는 우리를 引導하는 要素들중의 단지 한 要素일 뿐이다.<sup>32)</sup>

이런 기하학적 정신이 자연과학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든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는 그 적용에 조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기하학적 정신은 지식의 완전성을 가정하는 것이며, 이런 지식의 완전성에 의해서 합리주의가 나타나고, 이런 합리주의에 의하여 사회제도의 개혁, 즉 이성의 힘에 의한 사회제도의 개혁을 부르짖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개인의 지식에는 어떤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그 개인의 주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식은 극히 단편적이며, 불완전하다. 더구나 그 개인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신념 또는 견해는 더욱 더 주관적이며 불완전하다.

반면 이성에 대해 하이에크는 Black의 정의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진실과 허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심리적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정의는 “도덕의 規律은 우리의 理性의 結論은 아니다”라는 Hume의 선언과 일맥상통한다.<sup>33)</sup> 이것은 이성의 한계를 명백히 제시하여주는 내용으로

29) 하이에크관점에서의 지식은 알려진 사실들(knowledge-that)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 예컨대 숙련과 같은 것(knowledge-how)도 포함한다. Butler, E.: *Hayek: His Contribution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Thought of our Time* (London: Temple Smith, 1983), p. 20.

30) Black, H. C.: *Black's Law Dictionary* (St. Paul Minn.: West Publishing, 1968), p.1138.

31) Hayek, F. A.: “The Results of Human Action but not of Human Design,” *Les Fondements Philosophiques des Systèmes Economiques*, 1967. Reprinted in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ed. Hayek, F. 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7), p.107.

32) Hayek, F. A.: “Kinds of Rationalism,” *The Economic Studies Quarterly*, 1965. Reprinted in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ed. Hayek, F. 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7) p.87.

33) Ibid., p. 87에 인용된 D. Hume의 견해.

서, 理性이 價値를 創造하고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道德的 問題가 價値의 相衡에 의해 창조되어질 때 그런 상충을 어떻게 판결내리는가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할 때 이외에는 더 이상 이성이 필요치 않게 된다. 理性은 우리앞에 놓여있는 代案이 무엇인가? 相衡되는 價値는 어느 것이고 또한 그들중의 어느 것이 진정한 궁극적 가치인가? 그리고 다른 가치에 봉사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유도하는 中間的 價値는 어느 것인가를 알려주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임무가 성취되어지면 이성은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 즉 理性은 價値들간의 選擇에는 유용하지만, 궁극적 가치를 創造하거나 또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선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의 人間事에서 明白한 事實은 “①우리가 全知全能하지 않으며, ②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적응시키고, 그리고 ③그 결과로 각각의 특별한 행동이 事前에 合理的으로 상호간에 조정되어지도록, 예상되는 상세한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의 人生을 配列시킬 수는 없다.”<sup>34)</sup>는 점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物理的 環境과 다른 人間의 行動에 대해서 完全한 知識을 갖지 못하며, 그리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므로 미래가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미래에 대한 정확한 설계를 계획할 수 없다. 이것은 個別行動에서 우리의 理性이 얼마나 制限的인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人間行動은 一貫性이 있으며 合理的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行動이 추상적 규율의 체계에 맞추어서 스스로 적응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주관적인 상황)이 변하더라도, 우리의 行動은 이런 추상적 규율에 맞추어서 연속적으로 변하며 또한 이런 행동은 어떤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人間行動이 비록 걸로는 불연속 또는 불규칙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규율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에 一貫的이고 連續的이며 또한 제한된 범위내에서는 합리성을 갖는다.

Popper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우리의 지식이 더욱 깊어지면, 우리가 모르는 것에 관한 우리의 知識, 즉 우리의 無知에 관한 우리의 知識은 더욱 더 自覺的이고 특별하며 또한 더욱 더 명백하게 되어질 것이다.”<sup>35)</sup>

#### 나) 批判的 合理主義와 自由主義思想

理性의 限界를 명백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성을 너무 찬양하고 그 이성에 대해 무한한 힘을 부여하는 합리주의적 사상은 종국적으로 사회주의사상으로 귀결된다.

批判的 合理主義(critical rationalism)란 용어는 Popper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어졌는데,<sup>36)</sup> 이런 합리주의는 理性을 덜 높게 평가하고 반면에 自覺的 理性을 사실상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34) Ibid., p.90. (숫자는 필자가 임의로 부여하였음)

35) Hayek, F. A.: “The Theory of Complex Phenomena.” in *The Critical Approach to Science and Philosophy* (ed. M. Bunge, New York: The Free press, 1964). Reprinted in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ed. Hayek, F. 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7), pp. 38~40에 인용된 Popper의 주장.

36) Hayek, F. A. (1965) op. cit. p.94. 하이에크는 그 이전에 反合理主義(anti-rationalism)란 용어를 사용한다.

데 노심초사한다.<sup>37)</sup> 즉 理性的 限界를 명백히 인식하게 되면 理性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성의 한계를 명백히 인식하게 됨으로써 이런 견해는 自由主義思想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변경하길 원치 않고 그리고 그 자체로는 개인주의적 철학자들이 이끌어낸 결론에 대한 충분한 기초가 되는 明白한 知的 事實”은 “人間的 知識과 利害에 관한 本質的인 限界, 즉 人間은 전체사회의 극히 미세한 부분만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의 動因(motives)으로 삼입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그의 행동이 갖게 될 즉각적인 결과라는 사실”<sup>38)</sup>이다.

批判的 合理主義는 결과적으로 人間의 無知를 강조한 것이며, 이런 無知에 대한 強調은 사회에 관한 設計理論(design theory)를 기각하고 自發的 秩序(spontaneous order)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성을 예찬하는 이론은 社會의 設計를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만약 그 設計가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회를 파국로 몰고 갈 수 있다. 그러나 自發的 秩序는 급진적으로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사회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지는 않는다. 또한 이런 자발적 질서는 사악한 인간(bad man)이 사회에 대해 가장 최소의 해악을 저지르게 한다. 그리고 자발적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선한 인간(good man)의 발견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또한 현재 보다도 더 나아지는 모든 사람에 의존하지도 않는다.<sup>39)</sup>

결국 모든 사람은 타고난 재질이나 능력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모든 사람들이 타고난 재질, 능력 및 취향면에서 동일하다면, 사회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상이하게 다루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동일하지 않다. 단지 그런 이유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유주의의 기본적 전제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法の 公式의 同等을 창조한 후에, 우리는 각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수준을 발전하도록 방임하여야 한다.<sup>40)</sup>

#### IV. 科學的 說明과 豫測可能性

##### 1. 假說—演繹的 體系

科學的 說明의 方法으로 널리 용인되는 방식은 假說—演繹的 體系(hypothetico-deductive system)이며, 이런 체계는 物理學을 제외한 다른 應用科學의 상당부분과 社會科學에 적용되어질 수 있

37) Ibid., p. 84.

38) Hayek, F. A.: "Individualism: True and False," delivered Lecture, 1945. Reprinted i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ed. Hayek, F. 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p.14.

39) Ibid., pp.11~12.

40) Ibid., pp.15~16.

다. ①理論的 科學은 모두가 演繹的이며, ②事實에 대한 觀察로부터 普遍的 規律의 形成(formulation of general rules)으로 유도되는 歸納과 같은 그런 論理的 節次가 존재할 수 없고, ③그리고 一般的 規律의 形成은 公式化되어질 수 없는 人間心理의 創造의 行爲의 產物이라는 점이 Popper에 의해 강조되어졌다.<sup>41)</sup> Popper는 또한 이론들이 도출하는 結論들은 기본적으로 禁止(prohibition)의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즉 그 결론들은 어떤 종류의 事件들의 出現을 금지하며, 그리고 그 결론들은 명백히 確證되어질 수 없고 단지 그 결론들의 거짓(虛偽)을 증명하려는 계속적이고 성공치 못한 시도에 의해서 꾸준히 확인되어질 수 있다.<sup>42)</sup>

따라서 핵심적인 문제는 假說(hypothesis)의 選擇과 結合인데, 옳은 理論은 容認된 論證들(즉 假說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結合함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문제는 어떤 현상에 관한 설명에 사용되어진 假說 또는 法則이 眞實인가 여부가 아니라, 容認된 假說들의 適切한 選擇과 그런 假說들이 適切한 方式으로 結合되었느냐(즉 一貫性의 문제)의 여부이다.<sup>43)</sup>

社會科學에서는 心理學등에서 容認되어지는 論證들(이런 논증들은 반드시 眞實이라고 할 수는 없다)을 假說로서 적절히 선택하고 적절히 결합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관찰된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용해야 한다.<sup>44)</sup> 그런 연역적 체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이 검증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역적 체계로서의 설명이 검증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는 특히 사회과학분야일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면, 비록 그런 설명이 실제로 검증되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잘 구성된 가설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結論(說明)은 아직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sup>45)</sup> 그리고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이런 가설-연역적 체계가 순수한 연역은 아니란 점이다. 되도록 의미있는 많은 결론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의 선택상 관찰에 의해서 가능하여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록 관찰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의 해결은 역시 연역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sup>46)</sup> 따라서 하이에크의 가설-연역적

41) Hayek, F. A.: "Degrees of Explanation."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1955. Reprinted in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ed. Hayek, F. 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7), p.4.

42) Ibid., pp.4-5.

43) 예컨대 海洋學과 같은 "應用科學은 物理學에서 알려진 法則들의 結合으로부터 유도된 演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應用科學은 엄격히 말하면 應用科學의 別個의 法則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物理學의 法則을 그 응용과학에서 언급하는 특정한 종류의 현상에 적절한 설명적 패턴으로 상제화하는 것이다. 물론 潮水에 관한 연구가 새로운 自然法則의 發見으로 유도되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만약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아마도 물리학의 새로운 법칙이 되어질 것이며 海洋學의 새로운 법칙은 아닐 것이다." (Ibid., p.6)

44) Ibid., p.5. "통상적으로 믿어지는 바대로 과학은 未知의 것을 알려진 것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알려진 것을 미지의 것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Popper의 주장이다.

45) 다음에 설명할 "理論의 有用性"을 참조하라.

46) Ibid., p.7.

체계는 經驗科學의 측면을 갖는다. 이런 경험과학의 특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는 내용이 均衡에 관한 하이에크의 견해이다.<sup>47)</sup>

## 2. 豫測과 說明의 限界

### 가. 豫測과 說明의 定義

하이에크는 豫測과 說明이 同一한 過程에 대한 두가지의 觀點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의 경우에는 알려진 사실들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를 유도하는데, 알려진 規律이 사용되어지는 의미로 해석하고, 둘째의 경우에는 알려진 사실들로부터 그런 사실에 선행하는 것들(즉, 原因이 되는 事件들)을 유도하는데, 이런 規律들이 사용되어지는 의미로 각각 해석되어진다.<sup>48)</sup>

豫測과 說明의 性格에 관해서 하이에크는 “‘說明’과 ‘豫測’은 물론 個別的인 事件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종류 또는 집단의 現象들을 언급한다; 그것들[설명과 예측]은 언급되어지는 어떤 특별한 현상의 모든 性質들을 결코 언급하지 않고, 단지 몇가지의 性質만을 항상 언급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언급된 각각의 성질들은 유일한 가치 또는 크기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협소하더라도 그 성질이 속하게 되는 범위로서만 표현되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한다.<sup>49)</sup>

예컨대 과학적 예측은 알려진 사실로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에 관한 주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規律 또는 法則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측을 하려면 일어난 현상에 영향을 주는 모든 獨立變數들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런 독립변수들을 전부 안다고 하면, 우리의 예측은 상당히 정확할 것이다(단 우리의 이론이 옳다면). 즉 설명과 예측은 이미 용인된 논증들(그 진실성의 여부증명은 별개로 하고)을 적절히 결합하여, 관찰된 현상을 설명하거나 또는 미래의 현상을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과 예측에서의 중요한 사항은 관찰된 현상 또는 일어난 현상에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주게될 독립변수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 나) 說明과 豫測의 限界

하이에크는 理論이 적극적으로 檢證되어질 수 없고, 단지 反證可能한 資料에 의해서 그 이론의 허위를 증거할 수 있다는 Popper의 反證可能性(falsifiability)을 인정하고 있다. 즉 그는 어떤 이

47) Hayek, F. A.: "Economics and Knowledge." *Economica*, 1937. Reprinted i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ed. Hayek, F. 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pp. 33~56.  
Hayek, F. A., "Price Expectations, Monetary Disturbances and malinvestments." *nationalökonomisk Tidskrift*, 1935. Reprinted in *Profits, Interest and Investment* (ed. Hayek, F. 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39), pp. 135~156 및 Hayek, F. A.: *The Pure Theory of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1), pp. 14~28.

48) Hayek(1955) op. cit. p.9 n.4.

49) Ibid., p. 9.

론이 옳다는 것을 實際 觀察可能한 事實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確證되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론이 예측하거나 또는 설명하는 어떤 현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을 실제로 전부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 관찰되어지는 독립변수들은 무한히 많은 독립변수들중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극소수의 사실만으로는 특정한 이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하이에크나 Popper에게는 예측이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예측과는 상이한 내용을 갖는다. 통상적인 예측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긍정적인 측면의 내용을 갖는다. 그러나 하이에크나 Popper관점에서의 예측은, 특정한 이론이 옳은 경우에,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형태의 否定的인 豫測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人間の 知識의 限界(즉 無知)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sup>50)</sup>

이론의 유용성을 위해서 우리의 설명 또는 잠정적인 이론은 어떤 종류의 事件이 기대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종류의 事件들이 기대되지 않는지를 말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항상, 기대되는(또는 기대되지 않는) 현상의 範圍(range)를 알려주는 형태로 언급되어야 한다. 만약 기대되지 않아야 할 현상이 실제 관찰된 사실로 나타난다면, 그 이론은 반증되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에 나타나지 않을 범위를 그 이론에서 점진적으로 제거함에 의해서, 그 이론을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기대되는 현상이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sup>51)</sup> 따라서 이런 과정을 되풀이 함으로서, 만약 우리의 이론이 옳다면, 우리는 발생하지 않을 事件들의 組合에 관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하이에크는 科學의 進歩方向이 크게 두가지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의 이론들은 가능한한 反證可能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확실히 바람직하며, 또한 우리는 더욱 진전됨에 따라 反證可能性的 程度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필히 나가야 한다."<sup>52)</sup>

#### 다) 理論의 有用性

한편 설명과 예측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이에크는 理論의 有用性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어떤 特定한 事件이 특정한 순간에 기대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느 범위내에서만 事件들의 종류 또는 어떤 형태의 複合性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理論의 貢獻은 아마도 예측에 관해서 말하여지는 것에 의해서 보다는 오히려 方向(orientation)이란 용어에 의해서 더 잘 묘사되어질 것이다. 그런 이론이 정확히 무엇을 기대해야 할 지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이론은 우리의 주위의 세계를 더욱 더 익숙한 세계(즉 우리는 적어도 어떤 事件의

50) Hayek, F. A.: *The Counter-Revolution of Science* (Indianapolis: Liberty Press, 1952). pp. 72~76.

51) Popper, K. 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45). p. 263.

52) Hayek, F. A.: "The Theory of Complex Phenomena." in *The Critical Approach to Science and Philosophy* (ed. M. Bunge. New York: The Free Press, 1964). Reprinted in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ed. Hayek, F. 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7), p. 29. 이 주장의 기본적인 내용은 ①이론은 반증가능하여야 하고, ②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증에 견디어야 하며, ③그리고 새로운 이론은 선행하는 이론보다 반증가능성이 더 커야 한다.

出現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더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더 익숙한 세계)로 만들 것이다. ……비록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상세화하거나 또는 모든 가능성을 나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관찰된 양태는 다른 어떤 것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관점에서 의미를 갖다.”<sup>53)</sup>

이런 이론의 實踐的인 측면에 대해서, 하이에크는 理論的 否定的 屬性을 강조하면서 바로 그런 屬性때문에 그런 이론은 사회를 보다 옳바른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보았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特定한 結果를 발생시킬 수 없다고 할지라도, 事物의 原理에 관한 知識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더 바람직한 종류의 事件에 더 유리하게끔 만들 수 있게 한다……따라서 原理에 관한 說明은, 비록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結果를 統制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바람직한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종종 創造하게끔 허용할 것이다.”<sup>54)</sup>

한편 原理에 관한 단순한 說明에 의존함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그런 이론은 反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劣等한 競爭의 理論들의 除去는……점진적인 임무이다……어느 理論이 옳은 지를 결정할 명쾌한 실험도 존재할 수 없다. 重大한 誤用의 機會, 즉 그 분야에 有能한 사람들의 良識 (good sense)만 제외하면 어떤 단순한 검증도 반박할 수 없는 결치레적, 과도히 세밀화된 이론들의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명백한 엉터리처방에 대한 自救策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sup>55)</sup>

### 3. 豫測可能性과 科學主義

하이에크의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특징적으로 부각되는 두가지 측면을 살펴보자. 첫째 하이에크는 1933년에 經濟理論과 모든 다른 理論들은 “주어진 狀況, 事件 또는 措置의 必然的인 結果를 豫測하는데 전적으로 목표를 두어야 한다”<sup>56)</sup>고 주장하였다. 즉 이런 견해는 실제로 예측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인 모든 이론들은 현상을 설명하고 또한 예측하는데 그 필요성이 주어진다든 견해이며, 이것은 현대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와 상충된다. 둘째 自然科學에서는 複合의 現象에서 個別的 現象으로의 分析이 이루어지는데, 반면 社會科學에서는 “論議의 餘地없이 알려진 複合의 現象의 個別要素”<sup>57)</sup>에 관한 분석으로부터 複合의 現象으로의 分析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특히 자연과학이 객관적인 현상을 분석하는데 반하여 사회과학은 개별주체의 주관적인 측면을 분석한다고 보았다.

53) Hayek, F. A.: “Degrees of Explanation.”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1955. Reprinted in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ed. Hayek, F. 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7). p. 18

54) *Ibid.*, p. 19.

55) *Ibid.*, p. 19.

56) Hayek, F. A.: *Monetary Theory and the Trade Cycle* (New York: Augustus M. Kelley, 1933), p. 36 n.

57) Hayek, F. A.: “Socialist Calculation I: the Nature and the History of the Problem,” in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ed. Hayek, F. A., London: George Routledge & Sons, 1935). Reprinted i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ed. Hayek, F. 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p. 126.

우선 첫째의 경우에 하이에크는 이론의 중요성은 예측에 있다고 하였으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豫測不可能性을 주장한다. 이런 견해는 현대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와 부분적으로는 일맥상통하지만, 현대오스트리아학파는 하이에크적 예측조차도 부정한 완전한 豫測不可能性을 주장한다. 현대오스트리아학파의 한 사람인 Lachman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經濟學에서의 豫測不可能性은 經濟的 變化가 知識의 變化에 연관되어져 있다는 事實 그리고 未來 知識은 未來時點이 되기 전까지는 획득되어질 수 없다는 事實로부터 결과한다.”<sup>58)</sup>

여기에서 豫測不可能性이 단순한 의미에서 많은 자연과학에서처럼 상당한 정도의 正確性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하이에크의 견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人間的 選好, 期待 및 知識에는 本質的인 無決定性과 豫測不可能性이 存在한다”<sup>59)</sup> 주장이기 때문에, 사회에 관한 이론에서는 예측이 완전히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런 견해는 극단적으로 自由主義的인 哲學的 主張이라고 할 수 있다.<sup>60)</sup> 반면에 하이에크는, 자연과학적인 긍정적(또는 적극적) 예측가능성을 부정하고 또한 오스트리아학파처럼 완전한 예측불가능성도 역시 부정하면서, 중간적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否定的 側面的 豫測可能性 및 특히 사회과학에서의 一般的(또는 共通的) 原理에 관한 豫測可能性을 제시한다.

둘째로 하이에크는 科學主義(scientism)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科學主義는 社會에 관한 연구와 같이 부적절한 영역에 자연과학의 연구방식을 무조건 모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진다.<sup>61)</sup> 사회과학에서의 가장 커다란 오류는 측정가능한 것만을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며, 이런 경향의 결과로 사회과학의 이론들은 단지 측정가능한 변수들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더욱 더 문제시되는 것은 어떤 事實들이 數量化되어질 수 없다는 이유때문에, 그런 사실들이 단순히 무시되어진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극히 重要的 事實들(즉 人間行動의 意圖)을 제외한 모든 사실들을 포함한 우아한 數理的 모델을 구성하게 되어버린다.

이런 科學主義는 사실상 社會科學자들이 자연과학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다. 자연과학의 분석대상이 外部世界 특히 物理的인 世界인 반면, 사회과학의 분석대상이 두가지 世界 즉 物理的인 世界와 人間行動의 世界란 점을 명백히 인식한다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사이에는 方法論的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하이에크는 강조한다. 예컨대 천문학, 기상학, 해양학과 같은 응용물리학과 특히 생물학과 같은 분야에서는 複合的인 現象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그런 분야에선 특정한

58) Lachmann, L. M.: “Professor Shackle on the Economic Significance of Time.” *Metroeconomica*, 1959. Reprinted in *Capital, Expectations, and the Market Process* (ed. Lachmann, L. M., Kansas City: Sheed Andrews and Mcmeel, 1977), p. 90.

59) Kirzner, I. N.: “On the Method of Austrian Economics.” in *The Foundations of Modern Austrian Economics* (ed. Dolan, E. G., Kansas City: Sheed & Ward, 1976), p. 42, pp. 48~50.

60) Hutchison, T. W.: *Knowledge and Ignorance in Economics* (London: Basil Blackwell, 1977), p. 10에서, 自由主義的인 哲學的 主張은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行爲는 本質的으로 豫測不可能하여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개인들이 자유롭다고 믿거나 또는 그들이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行爲를 예측할 수 있는 可能性 또는 (과)예측하려는 熱望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61) Shand, A. H.: *The Capitalist Alternative: An Introduction to Neo-Austrian Economics* (London: Wheatsheaf Books, 1984), p. 6.



현상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무한히 많기 때문에, 人間의 知識으로는 이런 변수들을 전부 관찰할 수 없어서 방법론적인 면에선 그 차이가 상당히 적다고 보았다. 특히 原理에 관한 說明(explanation of principle)은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完全한 情報가 不在인 상태에선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V. 結 論

하이에크의 社會科學方法論의 基底에는 認識論的 要素와 心理哲學的 要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시각을 갖지 않는다면 하이에크의 經濟學을 이해함에 있어서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

우선 社會科學의 任務에 대해선, Carl Menger의 견해를 추종하면서, 人間社會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人間行動의 意圖되지 않은 결과인 社會的 秩序를 규명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各個人의 行動에서 나타나는 推象의 規律의 體係와 人間行動의 結果로서 나타나는 社會的 秩序간의 관계에 관한 適切한 洞察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고 보았다.

둘째로 行動規律과 社會的 秩序에 대해선 進化論的 見解를 갖는다. 우선 個人의 推象의 規律인 行動規律은 遺傳的으로 生得되어지기도 하지만, 外部物質世界, 他人의 行動規律들 및 社會的 秩序의 영향하에서 자신의 生存에 필요하게끔 適應되어진다. 즉 行動規律의 自然淘汰는 한 집단의 社會的 秩序의 效率性에 의존해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사회적 질서는 個人의 行動規律의 變化와 行動規律간의 相互作用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변모하면서 진보하며, 그리고 그런 질서가 規則性을 갖는 것은 無數한 行動主體들의 相互調整때문이다. 결국 각개인 행동규율은 사회적 질서에 적응해가면서 전체적으로 발전하며, 행동규율의 이런 自然淘汰에 부응해서 사회적 질서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보한다. 왜냐하면 보다 열등한 사회제도 또는 질서는 더 효율적인 다른 사회제도에 의해서 대체되어지기 때문이다.

셋째로, 하이에크의 認識論은, 知識의 獲得手段이 感覺認知라는 점에선 英國經驗主義와 유사하지만, 知識獲得時 理論依存的 認知를 한다는 점에선 상이하다. 이런 인식론적 기초위에서 그는 '與件'이 外部世界에 대한 被觀察者의 主觀的 見解 또는 信念이라고 보았고, 이런 與件은 결국 外部世界에 대한 지식이며, 이런 지식은 不完全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식의 變化는 여건의 變化를 의미하며, 시간의 경과와 함께 외부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식도 변화하므로 여건 자체도 가변적인 성질을 갖는다. 또한 不完全한 知識 때문에 人間行動에서 無知의 役割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批判的 合理主義가 등장하고, 個人主義에 입각한 自由主義思想을 옹호하게 된다.

네째로, 하이에크는 Popper에 의해 제창된 '假說-演繹的' 體係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체계의 내용은 반드시 참이라고 確證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容認되는 論證들을 假說로서 적절히 選擇하고 그리고 그런 假說들을 적절히 結合하는 것이다. 이런 체계의 한계는 첫째 가설들이 참이라고 確證되지 않았고 둘째로 그런 가설들의 적절한 결합이 또한 참이라고 確證되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한 그는 原理에 관한 說明과 豫測을 권고한다.

다섯째로, 하이에크는 Popper的인 洗練된 反證主義를 지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다소간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反證不可能한 경우가 다반사인 특히 사회과학분야에선 과도하게 세밀화되고 허구적이며 그러면서도 반증불가능한 이론이 제기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이론들에 대한 선별을 위해서는 그는 오직 그 분야에 유능한 전문가들의 良識만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론의 進步的 發展을 위해서 그는 個人的 創造的 才能을 억압하지 않는 意志의 自由를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서는 全社會科學分野의 統合化를 主張한다.

## Summary

## Hayek on Epistemological Individualism

*Park, Sang-soo*

Hayek regarded epistemology and philosophical psychology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the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If we can't grasp that background, we will encounter th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Hayek's economics and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My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following Carl Menger's view, he maintained the task of social science is to study the undesigned result of human action. But the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the abstract rule of human action and the social order which come from the result of human action, he knows, is a very difficult and tedious task because the overall (or social) order of human actions in a group is more than the simple totality of regularities observable in the actions of the individuals and cannot be wholly reduced to them.

Secondly, he has the evolutionary view for the rule of action and the social order. The abstract rule of each individual is acquired innately but adapted to rules of action of others, the physical world and the social order so as to survive his life. That is, the natural selection of the abstract rule depends upon the efficiency of the social order in a group.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order, which depends upon the change of rule of action and the interplay of the rules of action of each individual with actions of other individuals, changes and develops gradually, and such social order has the regularity because of the co-ordination of many agents. After all, the abstract rule of each individual will develop as wholes, and a spontaneous change of the abstract rules of each individual and of the resulting social order may enable the group to persist in circumstances which, without such change, would have led to its destruction.

Thirdly, Hayek's epistemology resembles the British empiricism in respect that man acquires knowledge by means of sense-perception, but differs from it in respect that, when acquiring knowledge, man perceives things abstractly. He asserts, on this epistemological foundations, "data" are the subjective opinions or beliefs of the acting or thinking person about the external world. This data mean each person's knowledge about the external world.

and such knowledge is usually imperfect. Therefore the change of one's knowledge means the change of one's data. And, because of imperfect knowledge, the "ignor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human actions. From this comes the critical rationalism, and he supports, on this foundation, the individualistic liberalism.

Fourthly, Hayek accepts the "hypothetico-deductive" system expounded by Karl Popper. The content of this system is to choose the generally accepted(although never confirmed) arguments as the hypotheses properly and to combine them properly. The limitations of this system are that it is not confirmed that the selected hypotheses are true and that it cannot be confirmed that the proper combination of those hypotheses is true. Therefore he, recognizing these problems, recommends the explanation and prediction of the principle.

Fifthly, he supports the Popperian sophisticated falsificationism but has a more or less sceptical view against it because there will be opportunities for grave abuses: possibilities for pretentious, over-elaborate theories which no simple test can refute. Therefore he thinks that constant awareness of these dangers is the only effective precaution, and only the good sense of those equally competent in the field, to eliminate inferior rival theories, is important. And, to achieve the evolutionary development of theories, he asserts that we must utilize the freedom of will which does not suppress the creative talent of each person.